

# 주4일 근무제,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주4일 근무제 사회와 지역의 대응' 세미나... 자연 친화적 여가 시장과 치유·회복의 여가 시장 확대 전망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지난 13일 '주4일 근무제 사회와 지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사회 변화를 전망하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과제 발굴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4일 근무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예측 및 분석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실험하며 최적이 대안을 찾고 있다. 스웨덴은 팬데믹 노동시간을 찾았으나 2개월간 1일 6시간제를 실험하였고, 아이슬란드는 4년(2014-2019) 동안 경제활동인

구 1%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실험하였다. 이 외에도 스코틀랜드, 벨기에 등 주요 국가에서 주4일 근무제 실험을 토대로 노동시간 20% 감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4일 근무제에 따른 찬반 논쟁이 여전하다. 하지만 주4일 근무 실험을 하는 세브란스 병원의 중간 보고에서 시범 사업을 넘어 제도화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등 주4일 근무제는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주4일 근무제 도입 해외사례'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미래 사회변화에 대해 조망하고 이어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이 주4일 근무제와 지역의 여가 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여 지역 내 여가산업을 중심으로 전망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윤소영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장을 전망하면서 자연친화적 여가시장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가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정기 의원(전북도의회), 최영기 교수(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이현서 교수(이주대 스포츠레저학과), 문윤걸 교수(예원예술대 문화예술대학원), 구혜경(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기획팀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4일 근무제가 조만간 다가올, 가까운 미래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사회변화를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북이 주4일 근무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대체적인 사회변화가 예상되는 주4일 근무제라는 미래를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대응하여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면서, "주4일 근무제에 따른 사회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지역의 대응전략을 고민하는 미래전략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재훈 기자

# 도,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에 62억 지원

스마트팜 조성비 70% · 14곳 대상... 이달 말까지 신청

전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창업 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조성비 70%를 14개소에 지원하여 청년의 농촌 정착과 농촌인구 늘리기에 주력한다.

대상지역은 도내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동부권 시·군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제외)이며, 타시도 청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농촌의 젊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해 '뒤편'은 농촌을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농업에 신규진입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 지원금으로 농촌 정착과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년농업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이 안정화될때까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은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재배작물 선택, 유통방안 등으로 습득하고, 지역정책에 필요한 리더교육과 갈등관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청년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10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서류와 대면평가를 통해 11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재훈 기자

# “노사 상생 ·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함께 조성하자”

노사 상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개인과 사업장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찬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산업평화대상 및 모범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하고 노사상생의 선진노사관계 구축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산업평화 대상 2명과 모범사업장 4개 기업에 각각 시상했다.

산업평화 대상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하림정음공장 차대진 공장장과 신젠타코리아(주) 허영배 공장장이 선정됐다.

차대진 공장장은 2000년 하림에 입사해 23년간 재직하며 창의적인 업무추진 능력과 노사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차 공장장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근로현장의 불합리한 요인(월 평균 20개)을 발굴·개선하고 봉근커스 지원(7대), 근로자 세탁실 운영 등 노동권익 향상과 정음시 취업중개센터

전북도, 대상 2명 ·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4곳 수상 영예  
노사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 노사문화 확산 기대



노사 상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개인과 사업장이 선정됐다.

와 고용센터를 통해 생산직 신입사원의 일자리 창출(23년 63명)에 기여한 공로다.

허영배 공장장은 2016년부터 신젠타 코리아 공장장으로 재직하며 노사문화 안정과 화합 및 사업장 안전을 제일 우선순위로 관리해 좋은 품질 보증으로 연결, 익산 공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APAC, Asia-Pacific) 수출 전진기지

로 만들어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허 공장장은 또, 임원을 명예고용평 등 감쪽관으로 위촉해 남녀고용 평등 실현 및 노사관계 개선에 노력해 오며 매년 노동조합·공장장·고용노동부·협력업체 등과 노사정 사회정책 임 협약을 통해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훈 기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최근 1년간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중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고용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대기업 부문에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중견기업 부문에 삼안회성(주) 전주공장, △중소기업 부문에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등 총 4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대기업 1,500만원, 중견기업 1,3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 등의 노사화합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된다.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노사협의회와 경영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해 소통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충처리제도, 제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 점, 다양한 사내 복지제도 운영에 노사상생의 기업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중견기업 부문에서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대주코레스(완주군 소재)는 올 4월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어 공장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전원 고용을 유지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김재훈 기자

# 도,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전' 참가... 새만금 기업유치 홍보

전북도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NTRA 2023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1회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전'에 참가해 새만금 산업단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전'은 국내 소재산업의 성장과 수요다변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작한 국내 유일 소재 관련 종합전문전시회로 최근 핵

심 소재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재편에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탄소중립·친환경 등 미래형 소재 개발에 단초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즈니스 매칭 전문

전시회이다.

도는 3월 'EV 트렌드 코리아'와 6월 '인터패티리 유럽 2023'에 이어 세번째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홍보하며, 이번 행사는 새만금개발청·군산시·농어촌공사와 함께 홍보관을 운영해 1:1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만든다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자 모집

부안군은 2023년 10월 16일, 100MW 규모의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했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3년 12월 4일까지 공고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본 사업에 참여토록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기 판매 가격 가중치 부여, 새만금 부지 사용료 감면 등을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하는 한편, 지역발전기여금 납부 시기와 납부 방식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 하락을 방지하여 본 공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부안군은 총사업비의 일부가 주민들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받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발전 수익이 우리 지역에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방안을 제안하게 하여 추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사업협약에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제1회 익산시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20일까지 신청

익산시는 '제1회 익산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원광대학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부설 K-ICT창업멘토링센터), 벤처기업협회 총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고 (주)산네트웍스 후원으로 개최된다.

'창업경진대회'는 1차 서류평가를 거쳐 총 18개 팀이 선발되며, 본선 진출은 익산 청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서 등을 내려받아 이메일(hikwon@gomentoring.or.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창업지원계(063-859-738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할 계획이다.

상금은 대상(1개 팀) 300만 원, 특별상(2개 팀) 각 100만 원, 최우수상(2개 팀) 각 100만 원, 우수상(2개 팀) 각 50만 원, 장려상(2개 팀) 각 30만 원, 창업인재상(1개 팀) 150만 원으로 총 10개 팀에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호남·충청권역 거주(소재)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만 18세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나 3년 이내 초기 창업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익산 청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서 등을 내려받아 이메일(hikwon@gomentoring.or.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창업지원계(063-859-738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총장 박진배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http://www.jmaail.com)